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

성경: 골 3:1-2, 엡 2:5-6, 히 4:12, 고전 2:14-15

- I.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 골 3:1.
- A.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 히 1:3, 12:2, 롬 8:34.
1. ‘하나님의 오른편’은 으뜸의 위치, 곧 존귀한 첫째 위치를 상징한다.
 2. 하나님의 오른편은 우주에서 첫째이자 가장 높은 위치이다.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곳에 두시어, 온 우주 안에서 으뜸의 위치와 최고의 영예를 그분께 주셨다 — 히 1:13, 8:1, 10:12.
- B. 하나님은 죽음의 위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앉히셨다 — 엡 2:5-6.
1.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 모두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다.
 2.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승천하셨을 때 성취되었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어 왔다.
 3. 오늘날 우리는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실재를 실재화하고 체험한다 — 엡 2:8, 벧전 1:8, 히 11:1.
- C. 위에 있는 것들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며, 땅에 있는 것들과 대조된다 — 골 3:1-2.
1. 위에 있는 것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2. 땅에 있는 것들은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행위의 개선을 포함한다 — 골 2:8, 16, 18-23.
- D.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엡 2:6)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 E. 신약에 따르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승천,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심, 그분께서 머리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포함한다.
1. 사도행전 2장 3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 되시어 만물을 소유하셨으며,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히 1:9)이 되시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2.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지셨다 — 엡 1:22.
 - a. ‘교회에게’는 일종의 전달을 암시하고 있다.
 - b. 머리아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 c.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한 위치에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 — 엡 1:19-23.
- 3. 주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히 2:9). 그분은 휘장 안에 있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시다(히 6:19-20).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참장막의 사역자이시다(히 8:2). 또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시다(계 5:6).
- 4. 이러한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것들에 두어야 한다 — 골 3:2.
- 5.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반응하고 반항하는 것이다 — 히 2:17, 4:14, 7:26, 8:1-2, 계 5:6, 골 3:1-2.

II.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두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아와야 하며 혼과 영의 분리를 체험해야 한다 — 히 4:12.

- A.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에만 하늘에 있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우리의 영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땅에 속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 골 3:2.
 - 1.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길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 롬 8:16, 10:12.
 - 2.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수단으로 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엡 1:19, 22-23, 2:22.
 - a.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한쪽 끝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전달하는 또 다른 한쪽 끝이다 — 계 5:6.
 - b.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 안으로 높여진다 — 계 4:1-2.
 - c.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 있게 된다.
 - d.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 — 골 3:1.
- B. 우리는 혼과 영의 분리를 체험해야 한다 — 히 4:12.
 - 1.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혼과 영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분리된 항목임을 보여 준다. 혼과 영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2. 혼과 영은 두 실체이고 두 종류의 실질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이 둘은 여전히 구분되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의 분리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 히 4:12.
 - 3. 영은 혼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살아 있고 효력이 있는 말씀에 의해 영이 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 히 4:12.
 - 4.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은 두 종류의 사람, 곧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해 말한다.
 - a. 혼적인 사람과 혼 자체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 고전 2:14.

- b.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알고 체험하기를 좋아한다 — 고전 2:15.
 - c. 바로 영에 의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바로 영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얻기를 갈망한다.
- C. 우리의 혼과 영의 분리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둘 수 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조성될 것이다 — 골 3:1-2, 히 7:25-26, 8:1-2, 롬 12:2, 고후 3:18, 골 3:10-1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우리가 위에 있지 않고서 어떻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이 있는 하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영 안에 있을 때 또한 하늘에 있다. 그러나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땅에 있으며, 체험적으로 심지어 땅 아래 있을 수도 있다. 오직 영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늘에 있으며, 영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길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수단으로 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엡 1:19, 22-23, 2:22).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만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한쪽 끝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전달하는 또 다른 한쪽 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 안으로 높여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 있게 된다. 이럴 때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에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위에 있는 것들에 생각을 둬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신약에 따르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분께서 머리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포함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을 본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주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있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선구자이자 개척자이심을 본다. 우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 안에 계신다. 이러한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곧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분’(8:1)이신 것을 계시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본다. 우리의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시어서 그

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이다(히 7:25).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할 때, 하늘에서부터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신성한 전달은 자주 우리를 기쁨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공활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히 4:16). 위에 있는 것들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의 사역이 포함된다. 그분의 중보 기도로 인해 우리는 공활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에 있는 '참장막'의 사역자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세우신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사역자이다. 이 장막, 곧 이 거룩한 처소는 셋째 하늘, 곧 하늘에 속한 지성소이다.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체험에 있어서 우리의 거듭난 영 역시 지성소이다. 이처럼 우리의 영은 셋째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중보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시며, 그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 이 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만 창문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다. 하늘이 요한에게 열렸고, 그는 하늘에 세워진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계 4:1-2). 이 보좌는 단순히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권위의 보좌 곧 신성한 행정의 보좌이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라고 말했다. 요한은 또한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5:6)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본 이상은 오늘날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된다. 요한의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늘이 잠잠하거나 아무런 활동이 없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온 우주에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분이신 어린양 구속자는 이제 보좌에 계시고, 일곱 눈을 갖고 계시며,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주 예수님은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일곱 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어린양으로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다. 사실상 교회들은 하나님의 대사관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정세는 이 땅의 국가 원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통로인 교회들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그 나라에서의 미국의 연장이듯이, 하나님의 대사관들인 교회들은 하늘들의 연장이다. 우리의 본부, 행정 중심지는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양께서 서 계시면서 그분의 대사관들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신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대사관들이기 때문에, 원수는 이 교회들을 미워한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이상을 보며,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우리는 대사관들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본다. 일곱 영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본부로부터 대사관들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 영을 통하여 본부에 있는 것이 교회들 안으로 전달된다. 하늘들에 있는 보좌로부터 시작된 신성한 전달을 통해, 위에 있는 것들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으로 전해진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상을 볼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혁될 것이다. 이러한 이상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들, 곧 영광스럽게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모든 것의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어지신 분, 신성한 통치를 집행하시는 분께 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속한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조성될 것이다.

위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두 사역 중 두 번째 방면과 관계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방면은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이다. 삼십삼 년 반 동안 진행된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서 시작하여 그리

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마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 동안, 그분은 그분의 사역 안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땅에서의 사역에 친숙하고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이 중요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사역의 주된 방면이 아니다. 그분의 사역의 주된 부분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다. 땅에서의 사역에 의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사역에 의해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마 16:18).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곧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늘에서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보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께 우리 자신을 연결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두는 생활이어야 한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과 사역과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산다면 교회생활은 크게 높여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특정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그분의 하늘에 속한 공급을 그 지방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다. 우리가 어느 지방에 어떤 필요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기도하며, 그 필요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둘 것이다.

우리의 표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하나 된 생활을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우주적인 행정관으로서 살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시는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 된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인의 위대한 사업으로 완전히 점유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그분께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그분은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갈망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정욕으로 가득한 지체들은 죽음에 넘겨질 것이고, 타락한 혼 안에 있는 악한 요소들은 제해될 것이며, 옛사람은 벗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동적으로 새사람을 입게 될 것이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 곧 그분과 하나 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땅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 전달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달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한다. 우리 중 누구도 실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전달에 반응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행정을 수행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신성한 전달, 하늘에 속한 흐름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전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그분께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그분과 우리 사이에 절연체가 생기도록 그대로 둔다면, 이러한 전달은 멈출 것이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체험 가운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신성한 흐름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교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에서 계속해서 신성한 전달을 받아야 한다. 밤낮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

는 공급을 주입받아야 하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전달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계속 반응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중보 기도와 사역과 행정으로 점유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생활의 모든 작은 문제들을 돌보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책임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마 6:33).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반향이 된다. 우리의 기도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길을 얻으신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연장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한담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대사가 전혀 아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대사가 된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단장하는 목표를 위해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서의 이 사역의 반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반향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소한 문제들을 기꺼이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관심하며, 우리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통행이 있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흐름이 오고 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신성한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하나 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올바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새사람을 새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늘에 속한 전달과 주입을 통해, 새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새사람은 하늘에 속한 통행과 전달과 주입을 통해 산출된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중에 새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새사람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사람이 이 땅에서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시고 우주적인 행정관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양방향의 통행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산물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이것은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열고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이 영께서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신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우리의 체험에서 하늘에 속한 전달이 운행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 이러한 본질이 우리 존재 안으로 더 많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새사람의 새롭게 됨을 더 많이 체험한다. 새롭게 됨은 신성한 실질이 우리 안으로 전달되는 것에 달려 있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604-3610쪽*)